

# 加耶國

## 1. 概說

[가야(가라)는 어떤 나라인가? 가야는 왜 신라나 백제처럼 강대국으로 되지 못하고 멸망할 때까지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강대국의 세력권에 들어가 있었는가?]

가야(加耶) 또는 가라(加羅)는 가(邊) 쪽에 있는 땅(耶.羅)이라는 뜻이다.

경상도 지방에는 원래 선주민(先住民)인 한(韓)이 살고 있었는데, 환단고기(桓檀古記) 북부여기(北夫餘紀)에 의하면 B.C 194년에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 기준(箕準)이 위만(衛滿)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무리들과 같이 한지(韓地)로 이동하였다. 이때 한지로 이동한 무리 중 일부는 경상도 지방으로 이주하여 선주민 한(韓)을 누르고 20여개의 소국(小國)을 세웠다.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조상(祖上)이 하늘나라 임금의 아들 환웅(桓雄)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왔다고 칭하였고, 자신들이 사는 곳을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무리가 사는 땅(耶.羅)이라는 뜻으로 구야(九邪) 또는 구주(九州)라 부르거나 이주경로로 볼 때 가장 가(邊) 쪽에 있는 땅(耶.羅)이라는 뜻으로 가라(加耶) 또는 가라(加羅)라 부르거나 변한(弁韓). 변한(卞韓) 등으로 적었다.[註 삼국지에는 구야(九邪)가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인 구야(狗邪) 또는 구야(拘邪)로 적혀 있다. 이때의 "邪"는 야(耶)와 발음이 같다.]

B.C 194년에 경상도 지방으로 이주한 무리 중 일부는 다시 대마도(對馬島), 구주(九州) 등지로 이주하여 수십개의 소국(小國)을 세우고 자제(子弟)의 나라가 되어 경상도 지방의 근국(根國)을 부형(父兄)의 나라로 섬겼다. 이들은 대마도나 구주도가 쪽에 있는 땅이라는 뜻으로 역시 가야(加耶) 또는 가라(加羅)라 불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B.C 57년에 진한(辰韓) 지역으로 이주(移住)해 온 박혁거세(朴赫居世) 무리는 선주민(先住民)을 누르고 사로(斯盧) 일명 진한(辰韓)을 세웠고,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의하면 A.D 42년에 변한(弁韓) 지역으로 이주해 온 김수로(金首路) 등 무리들은 선주민을 누르고 6가야를 세웠다. 그 후 A.D 97-103년경에 구주(九州)의 가야계(加耶系) 소국(小國)들이 중심이 되

어 야마대연맹(邪馬臺聯盟)을 세운 후부터 대마도, 구주에 있는 가야계(加耶系) 소국들은 종전까지 부형(父兄)의 나라로 섬기던 경상도 지방의 가야국 세력권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후 A.D 204년 10월에 장춘(長春) 방면의 부여왕(夫餘王( 위구태(尉仇台)가 공손강(公孫康)이 황해도 방면에 설치한 대방군(帶方郡)으로 이동하여 구태백제(仇台百濟)를 세우고 A.D 205년에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온조백제(溫祚百濟)와 마한(馬韓)을 정복하고 이어서 A.D 205-208년경에 야마대연맹(邪馬臺聯盟)을 복속시키고 A.D 208년경에 경상도 지방의 가야국(아라가야 제외)을 평정하였다.

그 후 A.D 396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토벌(討伐)하자 경상도 지방의 가야국은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들어 갔으나, 고구려의 세력이 약해지자 다시 백제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그 후 A.D 501년에 일어난 백제왕실(百濟王室)의 내분(內紛)으로 A.D 502-503년에 백제가 중국동해안분국과 요서분국을 상실하여 백제의 국력이 약해지자 신라는 그 틈을 타서 가야지방으로 진출하여 가야 소국들을 병합하였고, A.D 514년에 아라가야(阿羅加耶)를, A.D 532년에 금관가야(金官加耶)를, A.D 562년에 고령가야(高靈加耶)를 각 신라에 병합하므로서 가야국은 모두 신라에 병합되었다.

#### 참고 : ※사서에 나오는 가야 한자 명칭

사서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한자 명칭은 삼국지(三國志) 왜인전(倭人傳)에 나오는 구야(狗邪)이다.

1. 加羅 - 삼국사기(三國史記) 일부분, 일본서기(日本書紀) 대부분, 광개토대왕비문(廣開土大王陵碑文), 송서(宋書) 왜국전(倭國傳), 남사(南史) 왜국전(倭國傳), 남제서(南齊書) 왜국전(倭國傳), 통전(通典) 신라전(新羅傳),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
2. 加耶 - 삼국사기(三國史記) 대부분,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3. 伽倻 -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4. 伽耶 - 삼국유사(三國遺事) 대부분.
5. 駕洛 -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 김유신전(金庾信傳), 삼국유사(三國遺事) 왕력(王曆), 오가야(五伽耶)·가락국기(駕洛國記).
6. 狗邪 - 삼국지(三國志) 진변한전(辰弁韓傳)·왜인전(倭人傳).
7. 拘邪 - 삼국지(三國志) 마한전(馬韓傳).

8. 伽羅 - 양서(梁書) 왜전(倭傳).
9. 迦羅 - 수서(隋書) 동이전(東夷傳), 북사(北史) 신라전(新羅傳).
10. 呵라 - 삼국유사(三國遺事). 어산불영(魚山佛影).
11. 伽羅 - 일본서기(日本書紀).
12. 加良 -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흥왕기(眞興王紀), 열전(列傳) 강수전(强首傳).
13. 伽落 -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
14. 狗邪 - 삼국지(三國志) 왜인전(倭人傳).

## 2. 加耶國의 始祖와 首都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가야국(加耶國)의 이름이 나오나, 그 중 시조(始祖)의 이름이 나오는 가야국은 금관가야(金官加耶)와 고령가야(高靈加耶) 뿐이고 다른 가야국은 시조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고령군은 본래 대가야국이다. 시조 이진아시왕)<또는 내진주지라고도 하였다.>으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모두 16세 520년이였다. 진흥대왕이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으로 만들었다.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2현을 거느렸다. 야로현은 본래 적화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신부현은 본래 가시혜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 어디인지 미상이다. 高靈郡 本大加耶國 自始祖伊珍阿시왕 一云內珍朱智 至道設智王 凡十六世 五百二十年 眞興大王侵滅之 以其地爲大加耶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冶爐縣 本赤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新復縣 本加尸兮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김해소경은 옛날의 김관국<또는 가락국 또는 가야라고도 하였다.>이다. 시조 수로왕으로부터 10대손 구해왕에 이르러, 신라 법흥왕 19년(532년)에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으므로, 그 땅을 금관군으로 만들었다. 문무왕 20년에 소경을 만들었다. 경덕왕 때 김해경으로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금주이다. 金海小京 古金官國 一云伽落國 一云伽耶 自始祖首露王至十世仇亥王 以梁中大通四年新羅法興王十九年 率百姓來降 以其地爲金官郡 文武王二十年永隆元年爲小京 景德王改名金海京 今金州」

「고령군은 본래 고령가야국이다. 신라가 빼앗아 고동람군<또는 고릉현이라고도 하였다.>으로 만들었다.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함녕군이다. 3현을 거느렸다. 가선현은 본래 가해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가은현이다. 관산현은 본래 관현<또는 관문현이라고도 하였다.>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문경현이다. 호계현은 본래 호촉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古寧郡 本古寧加耶國 新羅取之 爲古冬攬郡—云古陵縣 景德王改名 今咸寧郡 領縣三 嘉善縣 本加害縣 景德王改名 今加恩縣 冠山縣 本冠縣—云冠文縣 景德王改名 今聞慶縣 虎溪縣 本虎側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화왕군은 본래 비자화군<또는 비사벌이라고도 하였다.>이다. 진흥왕 16년(555)에 주를 설치하고 이름을 하주(下州)라 하였다가, 26년(565년)에 주를 철폐하였다.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지금의 창녕군이다. 1현을 거느렸다. 현효현은 본래 추량화현<또는 삼량화라고도 하였다.>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현풍현이다. 火王郡 本比自火郡—云比斯伐 眞興王十六年置州 名下州 二十六年 州廢 景德王改名 今昌寧郡 領縣一 玄驍縣 本推良火縣—云三良火 景德王改名 今玄풍縣」

「고성군은 본래 고자군(古自郡)이다.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3현을 거느렸다. 문화량현(蚊火良縣)은 지금 어디인지 미상이다. 사수현은 본래 사물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사주(泗州)이다. 상선현은 본래 일선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영선현이다. 固城郡 本古自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蚊火良縣 今未詳 泗水縣 本史勿縣 景德王改名 今泗州 尙善縣 本一善縣 景德王改名 今永善縣」

「함안군은 법흥왕이 대군을 일으켜 아시라국(阿尸良國)<또는 아那加耶라고도 하였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만들었다.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2현을 거느렸다. 현무현은 본래 소삼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소삼부곡이다. 의녕현은 본래 장함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咸安郡 法興王以大兵 滅阿尸良國—云阿那加耶 以其地爲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玄武縣 本召삼縣 景德王改名 今召삼部曲 宜寧縣 本獐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성산군은 본래 일리군(一利郡)<또는 里山郡이라고도 하였다.>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가리현이다. 4현을 거느렸다. 수동현은 본래 사동화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 어디인지 미상이다. 계자현은 본래 대목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약목현이다. 신안현은 본래 본피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경산부이다. 도산현은 본래 적산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 어디인지 미상이다. 星山郡 本一利郡—云里山郡 景德王改名 今加利縣 領縣四 壽

同縣 本斯同火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谿子縣 本大木縣 景德王改名 今若木縣 新安縣 本本彼縣 景德王改名 今京山府 都山縣 本狄山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誌 第三 地里一

「가락기 찬을 상고하건데, 자색 끈 한 가닥이 하늘에서 내려와 6개의 둥근 알을 내렸는데, 5개는 각 읍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이 성에 있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수로왕이 되고 나머지 5개는 각기 5가야의 군주가 되었으니, 김관은 5의 숫자에 넣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본조의 사략에는 금관까지 그 숫자에 아울러 넣고 창녕을 더 기록했으니 잘못이다. 아라가야(혹 "羅"를 "耶"로 쓰기도 한다. 지금의 함안이다), 고령가야(지금의 함녕이다). 대가야(지금의 고령이다), 성산가야(지금의 경산이다. 혹은 벽진이라고도 한다), 소가야(지금의 고성이다)이다. 또 본조의 사략에는 이르기를 "태조 천복 5년 경자년에 5가야의 이름을 고쳤는데, 첫째 금관(김해부가 되었다), 둘째 고령(가리현이 되었다), 셋째 비화(지금의 창녕인데 아마 고령의 잘못인 듯 싶다), 나머지 둘은 아라와 성산(성산은 혹은 벽진가야라 한다)이다." 하였다. 按駕洛記贊云 垂一紫纓 下六圓卵 五歸各邑 一在茲城 則一爲首露王 餘五各爲五伽耶之主 金官不入五數當矣 而本朝史略 並數金官而濫記昌寧誤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 古寧伽耶(今咸寧) 大伽耶(今高靈) 星山伽耶(今京山一云碧珍) 小伽耶(今固城) 又本朝史略云 太祖天福五年庚子改五伽耶名 一金官(爲金海府) 二古寧(爲加利縣) 三非火(今昌寧恐高靈之訛) 餘二阿羅, 星山(同前 星山或作碧珍伽耶)」 三國遺史 第一卷 紀異 一 五伽耶

위 삼국사기 지리지와 삼국유사 문구에 의하면, 대가야(大加耶)의 수도는 고령이고, 금관가야(金官加耶)의 수도는 김해이며, 고령가야(古寧加耶)의 수도는 함녕이고, 비화가야(比火加耶)의 수도는 창녕이며, 소가야(小加耶)의 수도는 고성이고, 아라가야(阿羅加耶)의 수도는 함안이며, 성산가야(星山加耶)의 수도는 성주였다.

### 3. 加耶의 歷史

#### 1).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적혀 있는 가야의 역사

「개벽한 후 이 땅에는 나라의 호칭이 없었고 군신의 칭호도 역시 없었는데, 이때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귀간 등 9간  
이 있어 추장으로써 백성을 총괄해 다스렸으니 모두 100호 7만 5천명이었다. 스스로 산야에 도읍하고 우물을 파 마시고 농사를 지어 먹었다. 開闢之後 此地未有  
邦國之號 亦無君臣之稱 越有我刀干汝刀干彼刀干五刀干留水干留天干神天干五天干神  
鬼干等九干者 是酋長 領總百姓 凡一百戶 七萬五千人 多以自都山野 鑿井而飲 耕田  
而食.

후한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 3월 계육일에 살고 있는 북쪽 구지봉에서 수상  
한 소리가 있어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았으므로 2-3백명이 이곳에 모였는데, 사람  
의 소리 같으나 그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중략..자색 새끼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다. 새끼줄 아래를 살펴보자 홍색 보자기로 싼 금합이 있으므로 열어 보  
니 황김 알 6개가 있는데,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기  
뻐서 허리를 굽혀 백배하고 얼마 후 싸가지고 아도간의 집으로 가져와 탑 위에다  
두고 그 무리가 각기 흩어졌다. 12일이 지나 이튿날 새벽에 여러 사람들이 다시  
모여 합을 여니 여섯 개의 알이 동자로 변했는데, 용모가 매우 흰칠했으므로 그들  
을 상에 앉히고 배하하고 공경을 다하였다. 날마다 자라서 10여 일이 지나자 신장  
이 9척이 되니, 이는 은나라의 천을 같고 얼굴은 용으로 한의 고조요 눈썹의 여덟  
색채는 요 임금과 같고 눈동자가 검은 것은 순 임금과 같았는데, 그 달 보름에 즉  
위하였다.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휘를 수로라 하였는데, 혹은 수릉(수릉은 죽  
은 후 시호이다)이라고도 하고, 나라를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 하니, 바로 6가야  
의 하나이다.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기 돌아가 5가야의 주인이 되었다. 동쪽은 황  
산강,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이요 남쪽은 나라의 끝이  
었다.

屬後漢世祖光武帝建武十八年壬寅三月 계육之日 所居北龜旨[是峯巒之稱 若十朋伏之  
狀 故云也] 有殊常聲氣 呼喚衆庶 二三百人 集會於此 有如人音 隱其形 而發其音曰  
此有人否 九干等云 吾徒在 又曰 吾所在爲何 對云 龜旨也 又曰 皇天所以命我者  
御是處 惟新家邦 爲君后 爲茲故降矣 爾等須掘峯頂撮土 歌之云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以之蹈舞 則是迎大王 歡喜踊躍之也 九干等如其言 咸而歌舞  
未幾 仰而觀之 唯紫繩 自天垂而着地 尋繩之下 乃見紅幅裏金合子 開而視之 有黃金  
卵六 圓如日者 衆人悉皆驚喜 俱伸百拜 尋還裏著 抱持 而歸乃我刀家 次榻上 其衆各  
散 過浹辰 翌日平明 衆庶復相聚集 開合 而六卵化爲童子 容貌甚偉 仍坐於床 衆庶拜  
賀 盡恭敬止 日日而大 踰十餘晨昏 身長九尺 則殷之天乙 顏如龍焉 則漢之高祖 眉之  
八彩 則有唐之高 眼之重瞳 則有虞之舜 其於月望日卽位也 始現故諱首路 或云首陵  
[首陵是崩後諡也.] 國稱大駕洛 又稱伽耶國 卽六伽耶之一也 餘五人 各歸爲五伽耶主

東以黃山江 西南以滄海 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耶山 南而爲國尾

가궁을 짓게 하고 들어가 다스렸는데, 질검하여 지붕 끝을 자르지 않고 토계는 3척이었다. 2년 계묘 봄 정월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경도를 정하고자 한다" 하고서 이어 가궁의 남쪽 신답평에 행차하여 사방의 산악을 바라보고는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협소하기가 마치 蓼葉(요업)과 같다. 그러나 빼어나게 아름다워 16나한이 머물 만한 곳이니 참으로 이곳이 합당하겠다. 강토를 개척하면 마침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1500보 둘레의 羅城(외성)과 禁宮(궁궐), 殿宇(전당) 및 여러 有司(관청)의 屋宇(청사)와 무고, 곡식 창고를 지을 곳을 정하고 일을 마치자 환궁하였다. 두루 국내의 장정과 인부와 공장을 징집하여 그달 20일에 금양에서 시작하여 3월 10일에 역사를 마쳤다. 그 궁궐과 옥사는 농한기를 기다려 그해 10월에 짓기 시작하여 갑진년 2월에 이르러 다 지었다. 그리고는 좋은 날을 가려 새 궁에 임어하여 만기를 다스리고 여러 일을 부지런히 처리했다.

비創假宮而入御 但要質儉 茅茨不剪 土階三尺 二年癸卯春正月 王若曰 朕欲定置京都 仍駕幸假宮之南 新畚坪[是古來閑田 新耕作故云也 畚乃俗文也] 四望山嶽 顧左右曰 此地狹小如蓼葉 然而秀異 可爲十六羅漢住地 何況自一成三 自三成七 七聖住地 固合 于是 托土開疆 終然允臧歟 築置一千五百步周迴羅城 宮禁殿宇 及諸有司屋宇 虎庫倉 囷之地 事訖還宮 徧徵國內丁壯人夫工匠 以其月二十日 資始金陽 紀三月十日役畢 其宮闕屋舍 俟農隙而作之 經始于厥年十月 逮甲辰二月而成 涓吉辰御新宮 理萬機而勲庶務

갑자기 완하국의 함달왕의 부인이 임신을 하여 달이 차자 알을 낳았는데, 알이 변하여 사람이 되니 이름을 탈해라 하였다. 탈해는 바다로부터 왔는데 신장이 3척에 머리 둘레가 1척이었다. 그가 기뻐하면서 궁궐로 들어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위를 빼앗고자 하여 왔소" 하니 왕이 답하기를 "하늘이 나에게 왕위에 오르도록 명하여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으니 감히 하늘의 명을 어기며 왕위를 넘겨줄 수가 없다. 또 감히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을 너에게 부탁할 수도 없다" 하였다. 탈해가 말하기를 "그대가 기술을 겨룰 수 있겠는가?" 하니 왕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그리하여 잠깐 사이에 탈해가 매로 변하니 왕은 독수리가 되고, 또 탈해가 참새로 변하니 왕은 새매로 변하였는데, 이러는 사이에 조금의 시간도 흐르지 않았다. 탈해가 본신으로 돌아오니 왕 역시 본신으로 돌아왔다. 탈해가 이에 항복하며 말하기를 "내기 기술을 다투는 마당에 매가 되자 독수리가 되고 참새가 되자 새매가 되었는데도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대개 성인께서 죽이기를 원치 않는 어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왕과 더불어 왕위를 다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고는 곧 절하며 하직하고 나갔다. 그리고는 근교의 나루머리



에 이르러 장차 중국 선박이 왕래하는 물길을 따라서 가려 했다. 왕이 머물면서 난리를 꾸밀까 걱정되어 급히 수군 500척을 내어 추격하니 탈해가 계림 땅 경계로 들어갔으므로 수군이 모조리 돌아왔다고 하는데. 일의 기록이 신라의 기록과는 많이 다르다.

忽有琬夏國含達王之夫人妊娠 彌月生卵 卵化爲人 名曰脫解 從海而來 身長三尺 頭圍一尺 悅焉詣闕 語於王云 我欲奪王之位 故來耳 王答曰 天命我比即于位 將令安中國而綏下民 不敢違天之命 以與之位 又不敢以吾國吾民 付囑於汝 解云 若爾可爭其術 王曰 可也 俄頃之間 解化爲鷹 王化爲鷲 又解化爲雀 王化爲鵲 于此際也 寸陰未移 解還本身 王亦復然. 解乃伏膺曰 僕也適於角術之場 鷹之鷲 雀之於鵲 獲免焉, 此蓋聖人惡殺之仁而然乎 僕之與王 爭位良難 便拜辭而出 到麟郊外渡頭 將中朝來泊之水道而行 王竊恐滯留謀亂 急發舟師五百人而追之 解奔入鷄>林地界 舟師盡還 事記所載多異與新羅

건무 24년 무신 7월 27일에 9간 등이 조회 때 아뢰기를, "대왕이 강림하신 이래 배필을 얻지 못하셨으니, 청컨대 신들이 가진 아주 좋은 처녀를 뽑아 궁궐로 들여 보내 짝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짐이 이곳에 내려온 것은 천명이니, 짐의 배필로 후(后)로 삼는 것 역시 천명이다. 그러니 경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그리고 유천간에게 명하여 가벼운 배와 준마를 가지고 망산도에 가서 기다리게 하고, 거듭 신귀간에게 명하여 승점(原註 망산도는 서울 남쪽의 섬이며, 승점은 연하의 나라이다.)으로 가게 하였다. 갑자기 바다 서남쪽 모퉁이에서 붉은 돛을 단 배가 붉은 깃발을 나누끼며 북쪽을 향해 다가오므로 유천간 등이 섬 위에서 횃불을 드니 앞을 다투어 육지로 내려와 재빨리 달려왔다. 신귀간 등이 이를 보고서 대궐로 달려들어와 아뢰니, 임금이 듣고는 기뻐하면서 얼마 후 9간 등을 보내 좋은 키를 달고 아름다운 돛대를 드날리며 가서 맞이하여 대궐 안으로 모셔오게 했다.

屬建武二十四年戊申七月二十七日 九干等朝謁之次 獻言曰 大王降靈已來好仇未得 請臣等所有處女絶好者 選入宮闈 比爲伉儷 王曰 朕降于茲 天命也 配朕而作后 亦天之命 卿等無慮 遂命留天干 押輕舟 持駿馬 到望山島立待 申命神鬼干 就乘帖〔望山島京南島嶼也 乘帖 輦下國也〕忽自海之西南隅 掛緋帆 張赤旗 而指乎北 留天等 先舉火於島上 則競渡下陸 爭奔而來 神鬼望之 走入闕奏之 上聞欣欣 尋遣九干等 整蘭橈 揚桂楫而迎之 旋欲陪入內

왕후가 말하기를 "나와 그대들은 평소 알지 못하는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따라가겠는가?" 하였다. 유천간 등이 돌아와 왕후의 말을 아뢰니, 왕이 그렇게 여겨 유사를 거느리고 행차하였다. 그리고 대궐 아래 서남쪽 60보쯤 되는 곳의 산 언저리에



장막을 치고 기다렸다. 이에 황후가 산 밖의 별포진 머리에 배를 대고 육지로 올라와 높은 언덕에서 쉬며 입고 있던 비단옷을 벗어 선물로 산령에게 주었다. 그때 모시던 잉신 2명의 이름은 신보와 조광이고 그들의 처 2사람은 모정과 모랑이었으며, 비복까지 합치면 모두 20여 명이었다. 가지고 온 금수, 능라, 의상, 필단, 김은, 주옥, 경구복, 완기 등은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왕후가 점차 행재소에 가까이 오자 임금이 나가 영접하여 유궁으로 함께 들어가니, 잉신 이하 여러 사람들은 계단 아래서 뵈고 물러갔다. 임금이 유사에게 命하여 잉신 부처를 각각 한 방에 들게 하고 이하 下人들은 각기 한 방에 5,6명씩 들게 하되 좋은 음료와 향기로운 술을 주고 무늬 있는 잠자리를 주게 하였다. 또한 의복과 필단과 보화 등은 많은 군사로써 모여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왕과 왕후가 함께 침전에 들게 되었는데,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서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본국에 있던 금년 5월 중에 부왕과 황후가 저를 보고 말하기를 '아비와 어미가 어젯밤 같은 꿈을 꾸어 함께 황천상제를 보았더니 말씀하시기를, 가락국의 임금은 그 이름은 수로라고 하는데, 하늘이 내려 왕이 되게 하였으니 신성한 사람이며, 또 새로 나라를 세워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공주를 보내 배필로 삼으라 하고는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갔다. 꿈을 깨고 난 후에도 상제의 말이 귀에 남아 있으니, 너는 여기서 부모를 작별하고 그곳으로 향해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다에 떠서 쥘 대추를 구하고 하늘에 가서 선도를 얻어 아름다운 얼굴로 감히 용안을 뵈게 된 것입니다." 왕이 답하기를 "짐은 태어나면서부터 제법 성스러워 미리 공주가 먼 곳에서 올 줄 알았으므로, 왕비를 들이겠다는 신하들의 청을 감히 따를 수가 없었소. 그런데 어제 현숙한 그대가 스스로 이르렀으니 나는 다행으로 여기오" 하고는 드디어 합환하여 두 밤을 지내고 또 하루 낮을 지냈다. 그리고는 드디어 타고 온 배를 돌려보내면서 뱃사공 15명에게 각기 양식으로 쌀 10석, 포 30필씩을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 8월 1일 돌아오면서 왕후와 한 수레를 타고 잉신 부처도 모두 수레를 나란히 하고 왔다. 그리고 외국의 좋은 잡물을 모두 싣고 천천히 입궐하니 시간이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왕후는 이에 중궁에 거쳐하고 잉신 부처와 사숙에게는 빈 집 두 채를 주어 나누어 들게 하였으며, 나머지에게는 빈관 한 채 20여 칸에 사람 수를 작성하여 구별해 들게 하고 일용품을 넉넉하게 주었다. 또한 싣고 온 진기한 물건들은 내고에 저장하여 왕후가 사시에 쓰는 비용을 삼게 하였다.

王后乃曰 我與爾等素昧平生 焉敢輕忽相隨而去 留天等返達后之語 王然之 率有司動  
 輿 從闕下西南六十步許地 山邊 設幔殿祇候 王后於山外別浦津頭 維舟登陸 憩於高嶠

解所著綾袴爲贄 遺于山靈也 其地侍從인臣二員 名曰申輔趙匡 其妻二人 號慕貞慕良 或臧獲并計二十餘口 所賚錦繡綾羅 衣裳疋段 金銀珠玉 瓊玖服玩器 不可勝記 王后漸近行在 上出迎之 同入유宮 인臣已下衆人 就階下而見之即退 上命有司, 引인臣夫妻曰 人各以一房安置 已下臧獲各一房五六人安置 給之以蘭液蕙香 寢之 以文茵彩薦 至於衣服疋段寶貨之類 多以軍夫 인集而護之 於是 王與后共在御國寢 從容語王曰 妾是阿踰陀國公主也 姓許名黃玉 年二八矣 在本國時 今年五月中 父王與皇后 顧妾而語曰 爺孃一昨夢中 同見皇天上席 謂曰 駕洛國元君首露者 天所降而비御大寶 乃神乃聖 惟其人乎 且以新리家邦 未定匹偶 卿等 須遣公主而配之 言訖升天 形開之後 上帝之言其猶在耳 이於此 而忽辭親 向彼乎往矣 妾也浮海遐尋於蒸棗 移天형赴於蟠桃, 臻首敢도 龍顏是近 王答曰 朕生而頗聖,先知公主自遠而屆 下臣有納妃之請 不敢從焉 今也淑質自臻 玆躬多幸 遂以合歡 兩過清宵 一經白晝 於是遂還來船 고工楫師共有十有五人 各賜糧粳米十碩 布三十疋 令歸本國 八月一日廻란 與后同輦 인臣夫妻 齊丑并駕, 其漢肆雜物 咸使乘載 徐徐入闕, 時銅壺欲午 王后爰處中宮 勅賜인臣夫妻私屬空閑二室分入 餘外從者 以賓館一坐二十餘間 酌定人數 區別安置 日給豐羨 其所載珍物藏於內庫 以爲王后四時之費

하루는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9간들은 모두 서로의 장인데 그 지위와 이름이 모두 상스럽고 야만스러운 호칭이어서 결코 관원의 직위 칭호라고 할 수 없소. 혹시라도 밖에 전해져 들린다면 반드시 웃음거리가 될 것이지요" 하고는 드디어 아도를 아궁으로, 여도를 여해로, 피도를 피장으로, 오도를 오상으로 고쳤으며, 유수, 유천이란 명칭은 윗 글자는 고치지 않고 아랫 글자만 고쳐 유공, 유덕으로 하였다. 또 신천은 신도로 고치고, 오천은 오능으로 고쳤으며, 신귀는 음은 고치지 않고 훈만 고쳐 신귀로 하였다. 계림의 직의를 취해 각간, 아질간, 급간의 작질을 두고, 그 아래 관료는 주나라의 제도와 한나라의 제도로 나누어 정하였으니, 이는 옛 것을 개혁하여 새로 관을 설치하고 직을 나누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에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아들처럼 사랑하였는데, 그 교화함이 엄숙하지 않았으나 위엄이 있고, 그 정사가 엄하지 않았으나 잘 다스려졌으니, 하물며 왕이 황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마치 하늘에 땅이 있고 해에 달이 있으며, 양에 음이 있는 것과 비유할 수 있었다. 그 공열은 도산씨가 하나라를 보필하고 당원이 교씨를 흥하게 함과 같았다. 그해 꿈에 웅비의 징조가 있더니 태자 거등공을 낳았다. 후한 영제 중평 6년 기사 3월 1일에 왕후가 죽으니 수(壽)는 157세였다. 나라 사람들이 마치 땅이 무너진 듯 탄식하며 구지봉 동북쪽 언덕에 장사지냈다. 그리고 백성을 아들처럼 사랑하던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하여 처음 와서 육지에 내렸던 도두촌을 주포촌이라 부르고 비단옷을 벗어서 던지던 높은 언덕을 능현이라 하였으며, 붉은 것

발이 들어온 바닷가를 기출변이라 하였다. 잉신이던 천부경 신보와 종정감 조광 등은 나라에 도착한 후 30년 만에 각기 두 딸을 낳았는데, 부부가 12년 뒤에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 나머지 하인들은 온지 7,8년 사이에 자식을 두지 못하고 오직 고국을 그리워하는 슬픔을 지닌 채 고향을 향하고 죽었으며, 살던 빈관이 텅 비어 사람이 없게 되었다. 왕이 매양 고침에 의지하여 비탄에 젖곤 하다가 10년이 지난 헌제 건안 4년 기묘 3월 23일에 죽으니 수(壽)는 158세였다. 후략

一日上語臣下曰 九干等 俱爲庶僚之長 其位與名 皆是宵人野夫之號 頓非簪履職位之稱 當化外傳聞 必有嗤笑之恥 遂改我刀爲我躬 汝刀爲汝諧 彼刀爲彼藏 五刀爲五常 留水 留天之名 不動上字 改下字 留功 留德 神天改爲神道 五天改爲五能 神鬼之音不易 改訓爲臣貴 取鷄林職儀 置角干 阿叱干 級干之秩 其下官僚 以周判漢儀而分定之 斯所以革古鼎新 設官分職之道歟 於是乎理國齊家 愛民如子 其教不肅而威 其政不嚴而理 況與王后而居也 比如天之有地 日之有月 陽之有陰 其功也 塗山翼夏 唐媛興嬌 頻年有夢 得熊比之兆 誕生太子居登公 靈帝中平六年己巳三月一日 后崩 壽一百五十七 國人如嘆坤崩 葬於龜旨東北塢 遂欲不忘子愛下民之惠 因號初來纜渡頭村 曰主浦村 解陵袴高岡曰 綾峴 旌旗行入海涯曰 旗出邊 臣泉府卿申輔 宗正監趙匡等 到國三十年後 各產二女焉 夫與婦踰一二年 而皆拋信也 其餘臧獲之輩 自來七八年間 未有茲子生 唯抱懷土之悲 皆首丘而沒 所舍賓館 圓其無人 元君乃每歌鰥枕 悲嘆良多 隔二五歲 以獻帝立安四年己卯三月二十三日而丕落 壽一百五十八歲矣」

## 거등왕

「아버지는 수로왕이고 어머니는 허왕후이다. 건안 4년 기묘 3월 13일에 즉위하여 39년을 다스리고, 가평 5년 계유 9월 17일에 죽었다. 왕비는 천부경 신보의 딸 모정으로서 태자 마품을 낳았다. 개황력에 이르기를 "성은 김씨로 대개 가야국의 세조가 금란에서 나왔기 때문에 김을 성으로 삼았다" 하였다. 居登王 父首露王 母許王后 立安四年己卯三月十三日卽位 治三十九年 嘉平五年癸酉九月十七日崩 王妃泉府卿申輔女慕貞 生太子麻品 開皇曆云 姓金氏 蓋國世祖 從金卵而生 故以金爲姓爾」

## 마품왕

「혹은 마품이라 하며 김씨로서 가평 5년 계유에 즉위하여 39년을 다스리고 영평 원년 신해 1월 29일에 죽었다. 왕비는 종정감 조광의 손녀 호구로서 태자 거질미를 낳았다. 麻品王 一云馬品 金氏 嘉平五年癸酉卽位 治三十九年 永平元年五年辛亥一月二十九日崩 王妃宗正監趙匡孫女好仇 生太子居叱彌」

## 거질미왕

「혹은 금물이라고 하며 김씨로서, 영평 원년에 즉위하여 56년을 다스리고, 영화 2년 병오 7월 8일에 죽었다. 왕비는 아간 아궁의 손녀 아지로서 왕자 이품을 낳았다. 居叱彌王 一云今勿 金氏 永平元年即位 治五十六年 永和二年丙午七月八日崩 王妃阿躬阿干孫女阿志 生王子伊品」

## 이시품왕

「김씨로 영화 2년에 즉위하여 62년을 다스리고 의희 3년 정미 4월 10일에 죽었다. 왕비는 사농경 극충의 딸인 정신으로, 왕자 좌지를 낳았다. 伊尸品王 金氏 永和二年即位 治六十二年 義熙三年丁未四月十日崩 王妃司農卿克忠女貞信 生王子坐知」

## 좌지왕

「혹은 김질이라 하는데, 의희 3년에 즉위하여 용녀와 결혼한 후 그 여자의 당에 게 벼슬을 줌으로써 국내가 소란해졌다. 계림국이 모책을 써서 정벌하고자 하였는데, 박원도라는 한 신하가 있어 간하기를 "하찮은 풀이라도 역시 우충을 포섭하거늘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꺼지면 사람이 어느 곳에서 보전되겠습니까? 또 복사가 점을 쳐서 해괘를 얻었는데, 그 말에 이르기를 解而悔(해이회) 朋至斯孚(붕지사부)'라 하였으니, 임금께서는 주역의 괘를 보소서" 하자 왕이 좋다 하고 사례하였다. 그리고는 용녀를 물리쳐 하산도로 내쫓고 그 정사를 고쳐 오랫동안 행함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다. 15년을 다스리고 영초 2년 신유 5월 12일에 죽었다. 왕비는 대아간 도령의 딸 복수로서 아들 취희를 낳았다. 坐知王 一云金叱 義熙三年即位 娶傭女以女黨爲官 國內擾亂 鷄林國以謀欲伐 有一臣名朴元道 諫曰 遺草閱閱亦含羽 況乃人乎 天亡地陷 人保何基 又卜士筮得解卦 其辭曰 解而悔 朋至斯孚 君鑑易卦乎 王謝曰 可 傭女 貶於荷山島 改行其政 長御安民也 治十五年 永初二年辛酉五月十二日崩 王妃道寧大阿干女福壽 生子吹希」

## 취희왕

「혹은 질가라 하며 김씨로서, 영초 2년에 즉위하여 31년을 다스리고 원가 28년 신묘 2월 3일에 죽었다. 왕비는 각간 진사의 딸 인덕으로 왕자 질지를 낳았다. 吹

希王 一云叱嘉 金氏 永初二年即位 治三十一年 元嘉二十八年辛卯二月三日崩 王妃進思角干女仁德 生王子 玆知」

### 질지왕

「혹은 금질왕이라 하는데, 원가 28년에 즉위하여 이듬해 세조와 허황옥 왕후를 위해 명복을 빌고자 처음 세조와 왕후가 합어하던 자리에 절을 지어 왕후사라 하고, 전답 10결을 내어 충당했다. 42년을 다스리고 영명 10년 임신 10월 4일에 죽었다. 왕비는 사간 김상의 딸 방원으로 왕자 겹지를 낳았다. 一云 金질王 元嘉二十八年即位 明年 爲世祖許王玉王后 奉資冥福 於初與世祖合御之地創寺 曰王后寺 納田十結充之 治四十二年 永明十年壬申十月四日崩 王妃金相沙干女邦媛 生王子鉗知」

### 겹지왕

「혹은 김겹왕이라 하는데, 영명 10년에 즉위하여 30년을 다스리고 정광 2년 신축 4월 7일에 죽었다. 왕비는 각간 출충의 딸 숙으로 왕자 구형을 낳았다. 鉗知王 一云金鉗王 永明十年即位 治三十年正光二年辛丑四月七日崩 王妃出忠角干女淑 生王子仇衡」

### 구형왕

「김씨로 정광 2년에 즉위하여 42년을 다스렸는데, 보정 2년 임오 9월에 신라 제 24대 진흥왕이 군사를 일으켜 침공하므로 왕이 친히 군졸을 거느리고 나가 막았으나 적은 많고 아군은 적어 대적할 수가 없었다. 이에 동기 탈지이질금을 보내어 국내에 머물게 하고, 왕자 및 상손 졸지공 등과 함께 신라에 들어가 항복했다..종략..수로왕이 처음 즉위한 동한 건무 18년 임인에서부터 구형왕 말 임자년까지 계산하면 490년이 된다. 만약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땅을 바친 것이 위나라 보정 2년 임오이므로 30년이 더 있게 되니 모두 520년이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설을 다 기록한다. 仇衡王 金氏 正光二年即位 治四十二年 保定二年壬午九月 新羅第二十四君眞興王 興兵薄伐 王使親軍卒 彼衆我寡 不堪對戰也 仍遣同氣脫知爾叱今 留在於國 王子上孫卒支公等 降入新羅 王妃分叱水爾叱女桂花 生三子 一世宗角干 二茂刀角干 三茂得角干 開皇錄云 梁中大通四年壬子 降于新羅」 [註 가야의 존속기간이 490년이라는 설과 520년이라는 설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A.D 532년에 멸망하고 존속기간이 490년인 나라는 금관가야이고, A.D 562년에 멸망하고 존속기간이 520년인 나라는 고령가야이다.]

##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적혀 있는 가야왕의 재위기간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금관가야국(金官加耶國)의 왕(王) 이름만 나오고, 다른 가야국의 왕(王) 이름이나 재위기간은 나오지 않는다.

김수로왕(金首露王)	건무(建武) 18년(A.D 42년)	즉위	158년 재위
거등왕(居登王)	건안(建安) 4년(A.D 199년)	즉위	55년 재위
마품왕(麻品王)	가평(嘉平) 5년(A.D 253년)	즉위	39년 재위
거질미왕(居叱彌王)	영평(永平) 원년(A.D 291년)	즉위	56년 재위
이시품왕(伊尸品王)	영화(永和) 2년(A.D 346년)	즉위	62년 재위
좌지왕(坐知王)	의희(義熙) 3년(A.D 407년)	즉위	15년 재위
취희왕(吹希王)	영초(永初) 2년(A.D 421년)	즉위	31년 재위
질지왕(質知王)	원가(元嘉) 28년(A.D 451년)	즉위	42년 재위
검지왕(鉗知王)	영명(永明) 10년(A.D 492년)	즉위	30년 재위
구형왕(仇衡王)	정광(正光) 2년(A.D 521년)	즉위	42년 재위

## 가락국기에 적혀 있는 가야왕 재위기간의 문제점

가. 수로왕(首露王)의 재위기간이 158년으로 다른 왕의 재위기간에 비하여 현저히 길다. 또 수로왕이 가락국(駕洛國)을 건국한 그해 태어났고 수(壽)가 158세라고 적혀 있다. 이로 보아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적혀 있는 수로왕의 수(壽) 158세는 실제 나이가 아니고 수로왕계(首露王系) 왕조의 존속기간이다. 즉 수로왕의 수(壽)가 158세라는 것은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6 가야연맹의 수(壽)가 158세라는 뜻이다. 이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6 가야연맹이 A.D 199년경까지 존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해이사금(奈解尼師今) 6년(A.D 201년)조를 보면, 함안(咸安)의 (아라)가야가 신라와 강화(講和)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로 보아,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6 가야연맹은 이미 A.D 201년 이전에 와해(瓦解)되었고,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6 가야연맹은 A.D 199년경까지만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관가야의 존속기간을 490년간으로 적혀 있는 것은

수로왕 왕통(王統)과 그뒤 왕통을 함께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나. 금관가야를 중심(中心)으로 한 6 가야국은 3세기 초에 새로운 왕통(王統)으로 변하였다. 장춘(長春) 방면의 부여왕(夫餘王) 위구태(尉仇台)는 A.D 204년 10월에 공손강(公孫康)이 황해도 지방에 설치한 대방군(帶方郡)으로 이동하여 구태백제(仇台百濟)를 세우고 A.D 205년에 온조백제(溫祚百濟)와 익산(益山) 그마(金馬) 마한(馬韓)을 정복하고 이어서 A.D 205-208년경에 야마대연맹(邪馬臺聯盟)을 복속시켰으며, A.D 208년경에 백제(百濟).야마대연맹 군사들과 같이 7개 가야국을 평정(平定)하고 4읍을 항복(降服)받았다. 이때 구태백제(仇台百濟)에 평정(平定)된 가야국들은 새로운 왕통(王統)으로 변하였다. 구태백제(仇台百濟)의 가야지방 평정(平定)으로 기마전술(騎馬戰術)에 능한 만주 중.북부지방의 유목족, 사냥족 무리가 가야지방으로 대량 이주(移住)하였다. 그 결과 종전(從前)까지는 가야지방의 중심지가 바다와 가까운 김해, 고성, 함안 등지였으나, 만주 중.북부지방의 유목족, 사냥족 무리가 가야지방으로 대량으로 이주(移住)한 후에는 고령, 성주, 합천 등 낙동강(洛東江) 중.상류(中.上流) 방면 내륙지방이 가야(加耶)의 중심지로 변하였다. 참고(參考)로 가야지방이 백제(百濟).야마대연맹(邪馬臺聯盟) 연합군(聯合軍)에 의하여 평정(平定)된 후(後)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가야(加耶)라는 명칭(名稱) 대신 가야지방에서 쳐들어오는 군사(軍士)가 왜인(倭人) 또는 왜병(倭兵)으로 적혀 있다.

## 2).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적혀 있는 가야의 역사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신라(新羅)가 가야(加耶)와 접촉한 내용이 단편적(斷片的)으로 나오는데, 어느 가야인지 구별하지 않고 모두 가야로 적혀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적혀 있는 가야 관련 문구를 살펴본다.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 21년(A.D 77년) 가을 8월 아찬 길문이 가야와 황산진 입구에서 싸워 1천여 명을 사로잡았다. 길문으로 파진찬을 삼아 공로를 포상하였다. 二十一年 秋八月 阿飡吉門與加耶兵 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以吉門爲波珍飡賞功也」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8년(A.D 87년) 가을 7월 영을 내려 "부덕한 이 몸이 이 나라를 맡았다. 서쪽으로 백제와 이웃하고 남쪽으로 가야와 접근한데, 덕으로 무마하지 못하고 위엄으로 무섭게도 못하니 마땅히 성루를 튼튼히 하여 적의 침범에



대비토록 하라" 하였다. 이 달에 가소, 마두 두 성을 쌓았다. 八年 秋七月 下令曰 "朕以不德 有此國家 西인百濟 南接加耶 德不能綏 威不足畏 宜繕葺城壘 以待侵일" 是月 築加召馬頭二城」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15년(A.D 94년) 봄 2월 가야적이 마두성을 포위하므로 아찬 길원을 시켜 기병을 1천명을 거느리고 가 쳐 물리쳤다. 가을 8월 알천에서 군사를 사열하였다. 十五年 春二月 加耶賊圍馬頭城 遣阿淦吉元 將騎一千擊走之 秋八月 閱兵於關川」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17년(A.D 96년) 9월 가야 사람이 남변을 습격하므로 가성주 장세를 보내어 막아내게 하였는데, 적에게 죽임을 당하니 왕은 노하여 용사 5천을 인솔하고 나가 싸워 무너뜨리고 노획을 많이 하였다. . 十七年 秋七月 暴風自南 拔金城南大樹 九月 加耶人襲南鄙 遣加城主長世拒之 爲賊所殺 王怒率勇士五千出戰敗之 虜獲甚多」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18년(A.D 97년) 봄 정월 군사를 일으켜 가야를 치려 하다가 그 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므로 이내 중지하였다. 十八年 春正月 舉兵欲伐加耶 其國主遣使請罪 乃止」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23년(A.D 102년) 가을 8월 음즙벌국(註 안강)이 실직곡국(註 삼척)과 경계를 다투어 왕에게 찾아와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니 왕은 난처하게 여긴 나머지 금관국의 수로왕이 노숙한 나이라 지식이 많으려니 생각하고 불러 문의하니 수로왕이 의견을 내세워 다투던 그 땅을 음즙벌국에 소속케 하였다. 이에 왕은 6부에 명하여 수로왕을 대접하게 하니 5부는 다 이찬을 주(主)로 삼고 오직 한지부만이 지위 낮은 자를 주(主)로 삼으므로, 수로왕은 성내어 노비 탐하리를 시켜 한지부주 보제를 죽이고 돌아갔다. 그 노비가 도망하여 음즙벌국 타추간의 집에 의탁하고 있으므로, 왕은 사람을 시켜 그를 내 놓으라고 하였는데 보내주지 않으므로, 왕은 성내의 군사로써 음즙벌국을 치니 그 주가 군중과 더불어 스스로 항복하였다. 실직, 압독 두 나라 왕이 항복하였다. 二十三年 秋八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 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 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淦爲主 唯漢祗部 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祗部主保齊而歸 奴逃依音汁伐主타鄒干家 王使人索其奴 ..鄒不送 王怒 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自降 悉直押督二國王來降」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25년(A.D 104년) 가을 7월 실직국이 배반하므로 군사를 풀어 쳐 평정하고 그 잔당을 남쪽 땅으로 옮겼다. 二十五年秋七月 悉直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鄙」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27년(A.D 106년) 정월 압독에 순행하여 세국민에게 구호 양곡을 주었다. 3월 압독에서 돌아왔다. 가을 8월 마두성주를 시켜 가야를 쳤다. 二十七年 春正月 幸押督賑貧窮 三月 至自押督 秋八月 命馬頭城主 伐加耶」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29년(A.D 108년) 여름 5월 큰물이 나서 백성이 굶주리므로, 10도에 사자를 보내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다. 군사를 보내어 비지국, 다벌국, 초팔국을 쳐서 합병시켰다. 二十九年 夏五月 大水 民飢 發使十道 開倉賑給 遣兵伐比只國多伐國草八國并之」

「지마이사금(祇摩尼師今) 4년(A.D 115년) 봄 2월 가야가 남쪽을 침범하였다. 가을 7월 왕은 친히 가야를 치기 위하여 보기병을 거느리고 황산하(註 양산군 원동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낙동강하류)를 지나가는데, 가야 사람들이 미리 숲속에 복병하고 기다렸다. 왕은 모르고 곧장 나가니 복병이 발동하여 여러 겹으로 에워싸므로 왕은 군사를 지휘하여 들이쳐 포위를 뚫고 나아갔다. 四年 春二月 加耶寇南邊 秋七月 親征加耶 帥步騎度黃山河 加耶人伏兵林薄以待之 王不覺直前 伏發圍數重 王揮軍奮擊 決圍而退」

「지마이사금(祇摩尼師今) 5년(A.D 116년) 가을 8월 장수를 보내어 가야를 침범케 하고 왕은 정병 1만을 거느리고 뒤를 댔으나 가야는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고 때마침 비마져 오래 내리어 이에 환군하였다. 五年 秋八月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以繼之 加耶..城固守 會久雨 乃還」

「일성이사금(逸聖尼師今) 13년(A.D 146년) 겨울 10월 압독이 배반하므로 군사를 발동하여 쳐 평정하고 그 잔당을 남방으로 옮기었다. 十三年 冬十月 押督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地」

「내해이사금(奈解尼師今) 6년(A.D 201년) 봄 2월 가야(註 아라가야)와 강화하였다. 六年 春二月 加耶國請和」

「내해이사금(奈解尼師今) 14년(A.D 209년) 가을 7월 포상8국이 공모하여 (아라)가라국을 침범하니 (아라)가라국의 왕자가 와 구원을 요청하므로 왕은 태자 우노와 이벌찬 이음을 시켜 육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 구원하여 8국의 장군을 쳐 죽이고 포로 되었던 6천명을 탈환하였다. 十四年 秋七月 浦上八國 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淦利音 將六部兵 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註1 이때부터 가야와 신라가 싸우는 내용이 한동안 나오지 않고 구태백제(신라본기에는 "倭"로 비하되어 적혀 있다)와 신라가 싸우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경상도 지방의 가야국 중 함안의 아라가야(阿羅加耶)를 제외한 가야국이 구태백제에 평정되었기 때문이다. [註2 삼국사기 열전 물계자전(勿稽子傳)에는 골포(骨浦:마산), 칠

포(柒浦:칠원), 고사포(古史浦:고성?) 등으로 적혀 있고, 삼국유사 물계자조(勿稽子條)에는 보라국(保羅國), 고자국(古自國:고성), 사물국(史勿國:사천) 등으로 적혀 있다]

「내해니사금(奈解尼師今) 17년(A.D 212년) 봄 3월 (아라)가야가 왕자를 보내어 인질로 잡혔다. 十七年 春三月 加耶送王子爲質 夏五月 大雨 漂毀民屋 」

「조본이사금(助賁尼師今) 7년 (A.D 236년) 봄 2월 골벌국왕(註 영천) 아음부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므로 집과 농토를 주어 안정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만들었다. 七年 春二月 骨伐國王阿音夫 率衆來降 賜第宅 田莊安之 以其地爲郡」

「소지마립간(昭知麻立干) 3년(A.D 481년) 봄 3월 고구려가 말갈과 더불어 북변을 침략하여 호명(註 영덕 지품)을 비롯한 7개 성을 빼앗고 또 미질부(註 흥해)로 진군하므로 우리 군사는 백제, 가야의 구원병과 더불어 길을 나눠 방어하니 적이 패하여 물러가므로 추격하여 니하의 서쪽에서 쳐부수고 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三年 春..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 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경상도(慶尙道) 지방의 가야국(加耶國)은 A.D 396년에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들어가서 A.D 400년에 광개토왕이 대마도에 세운 임나연정(任那聯政)의 통제를 받다가 A.D 479년에 임나연정이 와해(瓦解)되었을 때 독립세력이 되어 친백제(親百濟) 나라가 되었다. 그후 A.D 502-503년에 백제가 중국동해안분국과 요서분국을 상실하여 국력이 약해졌을 때 신라는 그 틈을 타서 가야지방으로 진출하여 가야국들을 병합하였다.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15년(A.D 514년) 봄 정월 아시촌(阿尸村:함안)에 소경(小京)을 신설하고 가을 7월 육부 및 남방의 인구를 옮겨 도시의 모양을 갖추었다. 十五年 春正月 置小京於阿尸村 秋七月 徙六部及南地人戶 充實之 王薨 諡曰智證 新羅諡法 始於此..」

「법흥왕(法興王) 9년(A.D 522년) 3월 가야국의 왕이 사신을 보내어 혼인을 청하므로 이찬 비조부의 누이를 보내 주었다. 九年 春三月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淦比助夫之妹送之 比助夫之妹送之..」

「법흥왕(法興王) 11년(A.D 524년) 가을 9월 왕이 국경 남쪽을 순시하고 국토를 개척하였다. 가야국의 왕이 와서 회견하였다. 十一年 秋九月 王出巡南境拓地 加耶

國王來會.」

「법흥왕(法興王) 19년(A.D 532년) 금관국주 김구해가 비 및 세 아들 노종, 무덕, 무력과 함께 국고의 보물을 가지고 와 항복하니 왕은 예를 다하여 대접하고 상등의 위를 제수하고 그 나라를 식읍으로 만들어 주었다. 아들 무력은 벼슬이 각간에 이르렀다. 十九年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

「진흥왕(眞興王) 23년(A.D 562년) 가을 9월 가야가 배반하니 왕은 이사부를 시켜 가야를 토벌하고 사다함이 기병 5천을 거느리고 앞질러 전단문에 들어가 백기를 꽂으니 온 성중이 겁내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사부가 군사를 끌고 들이닥치므로 일시에 다 항복하였다. 二十三年 秋七月 百濟侵掠邊戶 王出師拒之 殺獲一千餘人 九月 加耶叛 王命異斯夫討之 斯多含副之 斯多含領五千騎先馳 入檀門 立白旗 城中恐懼 不知所爲 異斯夫引兵臨之 一時盡降.」

### 3).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한동안 가야(加耶) 명칭이 나오지 않는 이유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가야지방에서 가야(加耶) 명칭을 사용한 나라는 내해이사금(奈解尼師今) 17년(A.D 212년) 이후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소지마립간(炤知麻立干) 3년(A.D 481년)부터 다시 나온다. 그리고 가야지방에서 가야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소국(小國)들은 조분이사금(助賁尼師今) 7년(A.D 236년) 이후 나오지 않는다. 위 기간 동안에 가야국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은 주변국의 영향 때문이다.

A.D 208-209년경 구태백제(仇台百濟)가 신라 서.남 방면의 가야(加耶) 지역을 대부분 평정한 후 신라본기에 한동안 가야가 나오지 않는 것, 백제가 신라의 서북방면을 침공한 것, 구태백제(仇台百濟)가 왜병(倭兵) 또는 왜인(倭人)을 동원하여 가야 방면에서 신라를 침공한 것 등은 이 무렵 가야국 대부분이 백제의 세력권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후 A.D 396년 광개토왕의 백제 토벌로 경상도 지방의 가야국은 일시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들어갔으나, 고구려의 세력이 약해지고 백제가 다시 강성(强盛)해지자 가야국은 다시 백제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그후 A.D 502-503년에 일어난 백제 왕실(百濟王室)의 내분(內紛)으로 백제가 중국동해안분국과 요서분국을 상실하여 국력이 약해지자 그 틈을 탄 신라에 의하여 가야지방은 차츰 신라에 병합되었다.

빨간색 글자는 가야의 마지막 왕 구형왕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묘가 돌로 쌓은 피라미드입니다. / 서종채목사 청색 글씨는 원래 있던 것입니다.

## 4. 加耶國 相互間の 關係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駕洛國記)는 금관가야(金官加耶) 중심으로 적혀 있고 나머지 가야국(加耶國)에 대하여는 짧막하게 적혀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고령가야(高靈加耶)에 16명의 왕이 있었고 520년 동안 존속하였다고 적혀 있다. 반면에 금관가야에는 10명의 왕이 있었고, 490년(532-42) 동안 존속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를 보면 각 가야국은 독립된 영역(領域)과 왕(王)이 있었다.

「고령군은 본래 대가야국이다. 시조 이진아시왕<또는 내진주지라고도 하였다.> 으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모두 16세 520년이었다. 진흥대왕이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으로 만들었다.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2현을 거느렸다. 야로현은 본래 적화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신복현은 본래 가시혜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 어디인지 자상치 않다. 高靈郡 本大加耶國 自始祖伊珍阿王—云內珍朱智至道設智王 凡十六世 五百二十年眞興大王侵滅之 以其地爲大加耶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冶爐縣 本赤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新復縣 本加尸兮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김해 소경은 옛날의 금관국<또는가락국 또는 가야라고도 하였다.>이다. 시조 수로왕으로부터 10대손 구해왕에 이르러, 신라 법흥왕 19년(532)에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으므로, 그 땅을 금관군으로 만들었다. 문무왕 20년에 소경을 만들었다. 경덕왕 때 김해경으로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금주이다. 金海小京 古金官國—云伽落國 —云伽耶 自始祖首露王至十世仇亥王 以梁中大通四年新羅法興王十九年 率百姓來降 以其地爲金官郡 文武王二十年永隆元年爲小京 景德王改名金海京 今金州」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김수로왕(金首路王)은 건무(建武) 18년(A.D 42년)에 즉위하였고, 수(壽)는 158세였다. 이로 보아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6가야연맹(加耶聯盟)은 A.D 42년부터 158년간 즉 A.D 199년경까지 존속하였다.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6가야연맹이 와해(瓦解)된 후 가야국들은 독립된 소국(小國) 형태로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 5. 加耶國 名稱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금관가야(金官伽耶) 외에 5가야가 더 있었다고 적혀 있고, 태조(太祖) 천복(天福) 5년 경자(庚子)에 5가야의 이름을 고쳤다고 적혀 있다.

[가락기 찬을 상고하건대, 자색 끝 한 가락이 하늘에서 내려와 6개의 둥근 알을 내렸는데, 5개는 각 읍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이 성에 있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수로왕이 되고, 나머지 5개는 각기 5가야의 군주가 되었으니, 금관은 5의 숫자에 넣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본조의 사략까지 그 숫자에 아울러 넣고 창녕을 더 기록했으니 잘못이다. 아라가야(羅를 耶로 적기도 한다. 지금의 함안이다), 고령가야(지금의 함녕이다), 대가야(지금의 고령이다), 성산가야(지금의 경산이다. 혹은 벽진이라 한다), 소가야(지금의 고성이다)이다. 또 본조의 사략에 이르기를 태조 천복 5년 경자년에 5가야의 이름을 고쳤는데, 첫째 금관(김해부가 되었다), 둘째 고령(가리현이 되었다), 셋째 비화(지금의 창녕인데 아마 고령의 잘못인 듯 싶다)이며, 나머지 둘은 아라와 성산(전과 같다. 성산은 혹은 벽진가야라고 한다)이다. 按駕洛記贊云垂一紫纓下六圓卵五歸各邑一在茲城則一爲首露王餘五各爲五伽倻之主金官不入五數當矣而本朝史略竝數金官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古寧伽耶(今咸寧)大伽耶(今高靈)星山伽耶(今京山一云碧珍)小伽耶(今固城)又本朝史略太祖天福五年年庚子改五伽耶名一金官(爲金海府)二古寧(爲加利縣)三非火(今昌寧恐高靈之訛餘二阿羅星山(同前星山或作碧珍伽耶)」  괄호 안은 原註임.

아라가야(阿羅伽耶)를 아야가야(阿耶加耶), 아시라국(阿尸良國), 안라국(安羅國) 등으로도 적었는데, 고대 말 "아시라(阿尸良)"는 새 땅이라는 뜻이다. 즉 "아시라(阿

尸良)"는 신라(新羅)와 같은 의미이다.

고령가야(古寧加耶)나 고령가야(高靈伽耶)의 "古"나 "高"는 천제(天帝)를 지칭하는 글자이고, "寧"이나 "靈"은 "迎"을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고령(古寧)"이나 "고령(高靈)"은 천제를 모신다는 뜻이다.

대가야(大伽耶)는 고령가야(高靈伽耶)의 다른 명칭이다.

소가야(小伽耶)는 일명 고자국(古自國)이라 부른 고성(固城) 방면의 가야국이다.

성산가야(星山伽耶)는 성주(星州) 방면의 가야국이다.

비화가야(非火伽耶)는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비자화본(非自火本)으로, 환단고기(桓檀古記)에는 비자화본(比自火本)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비사벌(比斯伐) 등으로 적혀 있다. 고대에는 "非"."比"."卑"를 모두 히(日)로 읽었는데, 히(日)는 천제(天帝)를 뜻한다. 위 "火" 역시 천제(天帝)를 뜻하는 글자이다. 그리고 "本"은 정통성(正統性)을 강조(強調)하기 위하여 사용한 글자이고, "斯"는 새(新) 것이라는 뜻이며, "伐"은 들 또는 땅이라는 뜻이다. 즉 앞에 나온 비화가야(非火加耶), 비자화본(非自火本), 비사벌(比斯伐)은 천제(天帝)의 아들이 이주(移住)한 새 땅이라는 뜻이다.

가야(加耶) 지방에는 6 가야 외에 여러 개의 소국이 더 있었다.

## 阿里浪과 阿里羅 /

사서에 나오는 인명, 지명 등 한자 문구를 읽을 때는 한자 발음대로 읽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지금의 한자 발음대로 읽어서는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거란"은 "契丹"으로 적는데, 이런 경우는 원래 명칭을 적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발음과 비슷한 한자로 적은 경우이다.

그렇다면 아래 한자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阿里浪", "樂浪", "安羅", "那良", "加良", "阿利那禮河"

지금의 한자 발음대로 읽는다면 "아리랑", "낙랑", "안라", "나양", "가양", "아리나례하"가 된다. 그러나 고대 우리 민족이 사용한 발음대로 읽는다면 "아리라", "나라", "아라", "나라", "가라", "아리나례하"가 된다.

☞알라(闕羅:천제의 아들이 살고 있는 땅)→아리라(阿里浪) [천제의 아들을 뜻하는 알(闕)



+ 땅(羅)]

☞알지(關支)→천제의 아들 [천제의 아들을 뜻하는 알(關) + 지(支:氏,子)]

☞알영부인(關英夫人)→천제의 아들을 칭한 자의 부인.

☞알수(關水)→아리수(阿利水). 천제의 아들이 있는 곳 옆을 흐르는 강. 비류수와 같은 의미.

☞阿利那禮河(아리나리하)→일본서기 신공황후기에 나오는 용어로 백제의 수도 옆을 흐르는 강을 지칭. "아리나(阿利那)"의 "내(河)"라는 뜻.

☞樂浪(나라), 那良(나라)→땅을 뜻하는 고대 말 那,羅,那,耶,達 등에서 那와 羅가 합쳐 아주 넓은 지역 즉 대국 또는 종주국을 뜻하는 "나라"가 되었다.

☞安羅→새 땅을 뜻하는 고대 말 "아시라(阿尸羅)", 아시라(阿尸郎)에서 "시(尸)"가 탈락하고 "아라(阿羅)"가 됨. 함안의 阿羅加耶(아라가야)는 고대에 阿尸郎國(아시라국), "阿尸羅國(아시라국)", "安羅國(아라국)" 등으로 적었다.

☞那良(나라)→한반도에서 건너간 무리들이 일본의 중심지라는 뜻으로 부른 명칭이다.

☞加良(가라)→신라가 대화왜를 변두리에 있는 땅 또는 나라라고 하여 부른 명칭. 신라는 진흥왕 15년 백제의 왜 지원군을 加良(가라)로 적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위 글자를 지금의 한자 발음이나 뜻으로 해석해서는 원래 의미와 달라지게 된다.

간혹 사서에 나오는 한자 문구를 국문학적으로 고찰하여 어원을 밝히려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한자 문구가 생겨난 연원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문구의 발음이나 의미가 원래와 현저히 달라진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고대 우리 민족이 사용한 인명이나 지명은 고대 우리 민족의 고대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문학적으로만 고찰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아래에 국문학자가 연구한 글을 먼저 읽고 나서 다시 설명한다.

겨레어 아리랑과 아사달의 친연성 고찰 - 한글학회 발표 논문 2006/12/10 오후 3:05 <발표자 배영수>

아리랑과 아사달은 우리 겨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낱말들이다. 아리랑은 겨레의 정서를 대변

하고, 아사달은 겨례의 기원인 단군 조선의 도읍지로서 겨례 삶의 터전을 나타내는 낱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낱말의 어원을 밝히는 일은 우리 겨례의 기원과 정체성을 밝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두 낱말은 유구한 세월 동안 겨례의 역사와 영욕을 함께 해 온 운명 공동체이므로 둘 사이에 관련성도 작지 않을 것이다.

아리랑은 민요 “~ 아리랑”에서 아는 바와 같이 지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고향을 떠난 겨례의 일부가 새로운 정착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민족 정서와 새로운 정착지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원은 겨례의 그것 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국어학자 이기문 선생은 알타이 동계어 간의 비교 언어학적 방법으로 “아리라 = 사타구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기문 선생은 아리라를 '下'라고 하여 사타구니의 '사이 터(나라)'와 지형적으로 대응시켰는데, 도읍과 관련 수로왕의 일화를 살펴보면 고대 정착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수로왕이 새 도읍지의 지형을 묘사하여 여귀의 앞과 같이 좁다고 하였던 바, 고대 도읍지 혹은 정착지가 산골짜기였음을 시사함에 부족하지 않다. 선생의 지형적 해석은 바로 삼국유사의 내용과 부합하여 골짜기의 정착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타구니는 다시 살과 구니로 나누어 일본어 사토(里), 구니(國)와 비교할 수 있다. 사타구니가 오랜 기원을 지녔다고 볼 때, 고대 한국어라고 고려되는 일본어와 언어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리라를 아리와 (나)라로 나누었을 때 아리는 사토와, (나)라는 구니와 너무 자연스럽게 대응된다. 아리는 동아리, 동우리, 부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의 뜻을 지니고 있고, (나)라는 당연히 구니(國)와 동의어 관계에 있다. 마을을 뜻하는 아리와 살, 나라를 뜻하는 (나)라나 구니가 고대의 정착지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다.

정착지로서의 아리랑(아리라)을 보다 깊이 연구해 보면, 아리랑은 정착지의 조건인 배산임수에서 임수에 해당한다. 아리랑의 랑은 한자를 포함한 우리말 사용 방법상 라로 읽히기도 한다. 랑과 라는 음운 차이 만큼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두 물, 강, 하천 등의 뜻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정착지 아리랑은 마을내가 되어 임수의 뜻을 지니는 것이다.

아사달은 삼국유사에 고조선의 도읍지로 확인된다. 한자 阿斯達를 풀이해 보면 “큰 언덕의 터”가 된다. 阿는 “큰 언덕”의 뜻을 지녀 한국사에서 볼 수 있는 고대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주거 입지를 나타냄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斯는 사잇소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어학자 강길운 선생은 비사벌의 “사(斯)”를 사잇소리라고 밝힌 바, 아사달과 비사벌은 낱말 구조에 있어서 정확하게 대응된다. 마지막으로 達은 우리말 따, 터를 음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사달은 정착지를 뜻하는 고유어이다. 그러나 아리랑과 같이 보다 깊이 연구해 보면, 정착지

의 조건인 배산임수에서 배산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사는 아침, 애초, 겨레 등의 뜻을 지녔고, 달은 고대에 산이라고 하였으니 아사달을 애초의 산, 겨레산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말의 문자로서의 기원은 한자에서 비롯되었음이 통설이다. 고대 사회에 문자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한자는 음차로 시작하여 훈차, 훈음차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그러한 즉, 삼국유사에 나오는 아사달(阿斯達)의 한자를 차용 방법에 따라 풀이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삼국사기 지리지 에서 제시된 실례들을 모범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아사달의 사(斯)는 훈이 '이'가 되어 '아이 = 아리'가 된다. 달은 정착의 터로서 적합한 산을 일컬어 랑과 대응되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밝힌다.

삼국유사에 평양은 아사달이라고 한다. 평양은 벌나(도수희), 퍼라(신채호) 등으로 재구되는데, 이들은 다시 신채호, 양주동 등의 이론에 따라 아리랑으로의 풀이가 가능하다. 신채호는 음사라고 하였고, 양주동은 자음 탈락으로 해석하였다.

옥편에서 한자 浪(랑)을 검색하면 '조선군명낙랑 (朝鮮郡名樂浪)'이 나오는데, 이는 "조선군의 이름이 낙랑이다."로 해석된다. 조선은 아사달이고 낙랑은 아리랑이라고 했으니, 아리랑은 아사달과 동의어이다.

사마천의 사기 조선전을 보면 조선과 낙랑은 열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사마천이 조선과 낙랑을 동의어로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신채호는 열수를 아리수라고 하였는데, 아리수는 아리라(랑)이니 조선과 낙랑은 모두 아리랑이 되는데, 낙랑은 아리랑과 같다는 것을 전술하였으니, 특히 조선(아사달)이 아리랑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채호의 조선상고사를 보면 아리랑과 아시랑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리와 아리를 유음으로써 같은 말을 가리킨다고 보면 아리랑은 곧 아시랑과 같은 말이 된다. 여기서 아시랑의 尸에 대한 음독은 원래의 이두음인 'ㄹ'과 흑자에 따라 'ㅅ'으로 달리 읽힐 수도 있는데, 아리와 아시의 음차는 바로 尸의 음독 양태에 따른 차이로 볼 수도 있다.

비교 언어학적 접근 방법에 따라 알타이 제어를 살펴보면, 알타이어에 있어서 al, as 는 금(金)의 뜻을 함께 지니는 동의어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 지명에 등장하는 금산(金山)은 아리달, 아사달로 읽을 수 있는데, 도읍, 정착의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는 낱말이다. 강길운, 서정범 선생 등은 al을 as보다 더 고어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말과 관련하여, 아리달에서 아사달로 낱말이 변화하였을 개연성도 가져볼 만하다.

우리말 속에서 아리와 아사(아자)는 작다는 뜻과 크다는 뜻을 함께 가진 동의어로 발견된다. 아리랑은 한강과 대응하여 크다는 뜻을 지니지만 병아리는 새끼로서 작다는 뜻을 가진다. 아사달은 수도로서 크다는 뜻을 가지나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 등은 작다는 의미를 또한 지닌다.

터로서 달과 랑(령)을 대입하면 아리랑은 아사달과 동의어가 됨에 부족하지 않다.

양주동 선생은 랑을 령(嶺)으로 보는데, 이는 다시 달(達)과 통하는 것을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랑은 또한 일본어 야마와의 대응을 시도해볼 수도 있는데, 야마는 고대 한국어로 보아 라마, 람으로 재구할 수 있는 바, 람과 랑의 동일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로써 랑은 령과 야마와 달(산)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아리랑과 아사달의 어원 연구와 두 낱말의 친연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리랑과 아사달은 각각의 어원을 크게 두 가지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두 낱말은 공통적인 어원으로 정착지의 뜻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둘째, 두 낱말은 고대 정착지의 조건인 배산임수에서 아사달은 배산, 아리랑은 임수로 어원을 달리 한다. 그러나 두 가지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정착지로서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 전술한 여러 가지 증거가 두 낱말의 동의어적 성격을 더욱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아리랑과 아사달은 고대 거례 정착지의 뜻을 함께 지니고 있어 동의어 혹은 유의어로서의 친연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에 나온 글을 보면 어느 분은 "阿里浪"을 "아리라"로 제대로 읽었으나 그 명칭이 생겨난 연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타구니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였다. 또 어느 분은 "阿里浪"을 정착지의 조건인 背山臨水에서 임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대말 "나(那)""라(羅)""달(達)"은 땅을 뜻하지 내(川.江)를 뜻하지는 않는다. 임수는 "阿里浪"가 아니라 "阿里浪의 川(江)"로 적어야 맞다. 고대 우리 민족의 정착지를 00달(達), 00골(忽), 00산(山) 등으로 적은 것은 맞지만 "阿斯達"과 "阿里浪"가 같은 의미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아사달은 고대 말 아사(새,처음) + 달(땅)을 홑을 따라 한자로 적은 것으로 새로운 땅 또는 처음 땅이라는 뜻이다. 뜻을 따라 한자로 적으면 신라(새땅) 또는 조선(아침에 해 뜨는 땅)이 된다. 일본도 해뜨는 곳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阿斯達이나 阿里浪는 둘다 어떤 땅을 가리키지만 아사달은 새 땅 또는 아침에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이고, 阿里浪는 천제의 아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뜻으로 뉴앙스가 조금 다르다.

사서나 고기에 나오는 용어는 그 시대 사람들이 믿은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서나 고기에 나오는 문구나 용어를 풀이할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고대 구려 무리는 하늘에 환한 하늘나라가 있고, 이 하늘나라에는 해님과 달님 및 臣下인 수많은 별님들이 있으며, 낮에는 해님이 다스리고 밤에는 달님이 다스리며, 인간의 출생, 생사, 질병 등 인간만사와 가뭄, 비, 천둥, 바람 등 모든 자연현상은 하늘나라 임금님

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이들은 하늘나라 임금인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은 결과 지상세계의 임금, 고관, 장군들은 해님, 달님, 별님의 아들이라 믿었다. 즉 임금은 해님의 아들인 용이, 비왕은 달님의 아들인 천마 또는 봉황이, 위대한 장군이나 고관은 별님(星君)의 아들이 각 지상세계로 내려와 사람으로 변신하거나 또는 사람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믿었다. 그 때문에 독립국의 최고통치자는 해님의 아들이라 칭하였고, 천제에 대한 제사는 최고통치자가 주관하였다. 또 재해가 생기면 지상의 임금이 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믿었고, 하늘을 관측하는 담당자를 두어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였으며, 큰 별이 떨어지면 고관 또는 장군 중 누군가 죽는다고 믿었다.

이들은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떠올라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고 천제가 아침에 동쪽 땅에서 떠올라 하늘나라에서 정사를 돌보다가 저녁에 성모가 있는 西川 땅으로 내려와 잔다고 믿었다. 뒤에 아침에 동쪽에서 떠올라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해를 한자로 東明이라 적었는데, 고구려 때 동명은 천제의 아들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또 지상에서 물을 다스리는 신을 하백신이라 부르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용왕 또는 해신이라 부르며 숭배하였다. 이는 고대에 강과 바다가 아주 중요한 교통로였고, 어업, 염 생산 등에 있어 아주 중요한 생활 터전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관장한다고 믿은 하백신과 용왕을 숭배하였다.

고대 우리 민족은 해와 달을 하늘나라 임금(天帝)이라 믿었기 때문에 천제의 아들이 변신술로 瓠(박)이나 알 속에 들어가 지상세계로 내려와 지상의 임금이 되어 지상세계를 다스린다고 믿었다. 또 까마귀가 하늘나라에 살면서 천제의 뜻을 전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박이나 알 속에서 나온 사람 또는 까마귀가 따르는 사람을 천제의 아들이라 믿었고, 천제의 아들 상징으로 용 또는 3발 달린 까마귀를 사용하고, 달님의 아들 상징으로 옥토끼나 두꺼비(蛙) 등을 사용하였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는 세발 달린 까마귀(三足鳥)가 나오고, 민화에는 달 속에는 옥토끼나 두꺼비가 그려져 있다. 고대 우리 민족의 이러한 신앙 때문에 박혁거세나 석탈해 등은 자신을 천제의 아들이라 칭하면서 까마귀 또는 알과 관련된 설화를 만들어 천신숭배사상에 물든 무리들을 복속시켰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알이나 까마귀와 관련된 내용이 자주 나온다. 즉 박혁거세의 왕비를 알영부인이라 부른 것, 탈해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적은 것, 탈해가 들어 있는 독에 까마귀가 울며 따랐다는 것, 鵲이라는 글자의 한편을 떼어 탈해의 성을 뽑이라고 지은 것, 탈해가 지략이 많으므로 알지라 불렀다는 것 등이다. 탈해를 알지라 불렀다는 것은 탈해가 천제의 아들을 칭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 나온 關川(→아리내, →아리나이)는 천제의 아들이 있는 곳 즉 수도 옆을 흐르는 내

(川.江)라는 뜻이고, 關羅, 阿里浪(아리라)는 천제의 아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며, 설화에 나오는 "알(闕)"은 천제의 아들을 칭한 사람이고, "支"는 님 또는 아들. 새끼라는 뜻이다. 그리고 알영부인은 천제의 아들이라 칭한 자의 부인이다. 만약 우리 민족의 고대 신앙을 모르고 우리 민족이 고대에 사용한 문구를 국문학적 차원에서 풀려고 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阿里浪(아리라)"를 사타구니로 해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